

경제논리보다 상생법칙 따라야...

지난해에는 폭설과 한파로 많은 농가의 피해를 입었고, 계란유통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란등급제의 시범실시가 이루어졌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질병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를 퇴치하려는 채란인의 노력이 눈부셨던 해이기도 하다.

올해에는 월드컵이 5월 말부터 한달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계란을 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1. 하반기 수급조절이 필요

지난해 계란 가격이 생산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부문에 있어 질병발생과 산란중계의 적은 입식에 있었고, 유통에 있어 할인매장의 급속한 증가, 소비에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대체식품으로 많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생산부문에 있어 실용계 농장에서 입식수수 조절과 종계 수수조절은 계란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실례는 2000년 종계입식수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부터 산란중계의 수수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올 후반기에 채란업계에 불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올 불황의 원인은 원천적으로 우리 채란인의 단합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상생의 법칙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완전 경제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농업인 아니 채



심 준 식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도척농장 대표

란인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시기 상조가 아닌가 싶다. 이론이 어쨌든간에 우리는 채란인은 내년 후반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수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산란종계업계와의 수급조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상호협조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2. 현실에 맞는 계란등급제 실시

대구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등급제는 올해안에 등급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장 우리 채란인이 등급제를 하기를 원하지만 등급제 실시에 따른 비용에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안대로 등급제를 실시하려면 선별기 구입과 등급계란의 유통문제, 1등급 이외 계란 처리 문제 등 우리 채란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계란 소비 위축은 자명한 일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등급제 실시는 하여야 하지만 농장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농가의 비용 증가분을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등급제 실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하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

다. 계란등급제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실현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3. 질병 박멸에 적극 참여해야

요즘 소비자들은 식품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하여 항생제가 식품에 잔류될 경우 이를 강력히 제제할 것을 정부에 의뢰하고 있다. 질병이 발생되면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항생제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단방역을 해야 하며, ND나 가금티푸스 백신을 적극 사용하여 미리 질병 발생을 막아야 한다. 안전한 식품, 계란 생산을 위하여 질병박멸에 전 채란인 적극 참여해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 수시로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한 식품,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국내산 계란의 우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양계**